

민선 8기 후반기 로드맵 ‘주목’

오늘 기자회견 통해 향후 2년 도정 운영방안 제시
민생 회복·일자리·제2공항 갈등 등 제주 현안 산적
도정 핵심공약 도민 체감 성과 도출 주력 언급 예상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지난 2년 간의 전반기 업무를 마치고 7월 1일자로 후반기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후반기 도정 운영방향을 밝힐 예정으로, 현재 처한 민생경제 회복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를 시작하며 도민이 주인 되는 ‘도민정부 시대 개막’을 공식선언했다. 특히 “권위적인 중앙적 도지사 문화를 청산하고, 중앙적 권력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해 보다 나은 제주의 미래를 재설계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2년간 오영훈 도정은 민간 우주산업과 에너지 대전환 등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처한 현안 가운데

최우선 과제인 민생경제 회복을 비롯해 선거 공약사항인 상생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 등을 약속했다.

이에 오 도정은 우주산업과 도심 항공교통(UAM), 트램과 섬식정류장·양문형 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체계 변화, 그린수소를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 대전환과 바이오산업 육성 등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행정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내 도민 투표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등도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전반기는 도정과제와 핵심공약 등 주요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후반기에는 이들 사업들에 대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주현안인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 불안, 제주 제2공항 갈등, 저출생·고령화, 일자리 문제,

건설경기 침체, 1차산업 위기, 교통난·쓰레기난·상하수도 처리난 등을 비롯한 각종 경제·사회분야는 물론 제주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노력도 일정부분 개선 및 성과 도출이 이뤄져야 할 시기를 맞았다.

이와 함께 오 도정이 지난 전반기에 발표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그린수소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에너지 대전환 추진은 되레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각종 에너지 시설 확충에 따라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도 만만치 않다. 또한 도내 관광업계의 반발로 환경보전분담금 부과 문제도 답보 상태다. 개발과 보전의 상충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사업 추진에 따른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도는 민선 8기 후반기 2년을 도민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에 1일 도민과 함께 도정 전반기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도정 방향을 제시하며, 도민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각오를 다진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분관 탐라홀에서 공직자 대상의 7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민선 8기 출범 2주년 기념 일정에 나선다. 이어 도청 출입기자 단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의 소회와 하반기 2년의 도정 운영 방향을 도민들에게 직접 전달한다. 2주년 기념행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오후 7~9시 제주아트센터에서 ‘위대한 도민시대, 함께 그리는 새로운 미래’ 행사를 열어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민선 8기 오 도정은 후반기 업무 서막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오는 5일 발표 예정인 정기인사(7일자)와 조만간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장 임명 절차를 밟는다.

백경타기자 haru@ihalla.com



지난달 28일 한라일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1회 한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제31회 한라환경대상 시상식... 3개 기관·단체·개인 7명 영예

“환경 보전 정신 전파하는 계기 되길...”

자연 환경 보전에 앞장 선 개인과 단체가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하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라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제31회 한라환경대상’ 시상식이 지난달 28일 한라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한라환경대상은 환경 보전을 위해 헌신한 기관과 단체, 학교, 학생 및 개인 등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는 3개 기관·단체와 개인 7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라일보 김한욱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 500만 국민이 사랑하는 지역이다. 천혜의 환경을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그 일을 수상한 모든 분들이 앞장서 해줘 제주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축하했다.

김예숙 제주도 정부부지사는 축사에서 “오늘의 시상식이 자원 절약과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 보

전 정신을 전파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광수 도교육감은 오영훈 교육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잘 지키고 가꾸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숙명”이라며 “환경 보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내며, 한라환경대상을 중심으로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도 우뚝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31회 한라환경대상은 ▷한라환경대상 ▷한라환경실천상 ▷한라환경지킴이상 ▷한라환경 UCC 공모전 등 총 4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대상의 영예는 오종민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조원고등학교에 재직하는 오 사무관은 급식 과정에서 손도 안 댄 음식, 이른바 ‘잔식’이 전부 쓰레기로 처리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잔식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잔반 처리 비용을 절감, 환경 보전과 급식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오 사무관에게 환경부장관상과 3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한라환경실천상 최우수상은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RE: EARTH’가, 우수상은 정호린씨가 각각 수상했다.

또 한라환경지킴이상 최우수상 학교 부문 수상자로는 표선초등학교(교장 송성환)가 선정됐고, 교사 부문에선 화순오성초등학교 백혁 교사가 수상했다.

이와함께 한라환경 UCC공모에서는 ▷일반 및 대학 최우수 ▷임지은(검바위초등학교) ▷일반 및 대학 우수 ▷손시현(화운유치원) ▷고등부 최우수 ▷정동윤, 권서진, 김수(제주밤바다팀) ▷중등부 최우수 ▷김이현(안덕중학교) ▷초등부 최우수 ▷심윤화(인화초등학교) 학생 등이 각각 수상했다. 이상민기자

알림

한라일보에서 당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보세요

모집분야 : 수습/경력기자 0명

자격조건 : 초대졸 이상(재학생 지원 불가, 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마지막 학기 있는 자는 참여 가능)
※경력직은 동일직종 2년 이상

제출서류 : 한라일보 소정양식의 인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면허 사본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심층면접

서류접수 : qwer6281@hallailbo.co.kr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접수마감 : 2024년 7월 12일(목) 18:00까지

문의 : 한라일보 경영기획실 ☎ 064) 750-2531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대표관광레저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가부심이 되는 여행
창립 53주년 특별기회

롯데관광이 만든 프리미엄 여행 - 하이엔드

HIGH &

비즈니스클래스 / 5성급호텔 / 16석 한정판

제주 ↔ 도쿄

7월 19일 부터 운항 재개
수,금,일요일 출발

제주 13:05 → 나리타 15:35 / KE 2125

나리타 16:35 → 제주 19:25 / KE 2126

일본사업부
02)2075-3001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일본의 수도 도쿄【도쿄, 혼저음서예】

도쿄/하코네/요코하마/가마쿠라 3일

판매가 1,190,000 원부터

▶ 7/19~ 매주 수, 금 출발

- 도쿄(시부야·미나토·아사쿠사)/하코네/요코하마/가마쿠라까지
- 이동할 필요 없는 도쿄 시내 특급 온천 호텔 2연박
- 스카이트리, 도쿄타워, 레인보우브릿지를 바라보며 온천욕
- 3대 특식 + 시부야에서 즐기는 자유식(1천엔 지갑) + 조식맛집 라비스터 도쿄베이 조식 및 아사 포함

도심과 근교를 넘어 후지산과 온천마을까지【도쿄, 혼저음서예】

도쿄/하코네/요코하마/후지산/슈젠지 4일

판매가 1,549,000 원부터

▶ 7/19~ 매주 일 출발

- 도쿄(시부야·미나토·아사쿠사)/하코네/요코하마·후지산/슈젠지까지
- 도심 속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온천 호텔 2박
- 스카이트리, 도쿄타워, 레인보우브릿지를 바라보며 온천욕
- 자연 속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자연 온천 호텔 1박
- 나 혼자 산다 에 방영된 역사 깊은 온천 마을 속에서 온천욕

GRAND HYATT | **제주**
예약·문의: 1533-1234

금탑산업훈장 수훈 (2004년) |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024년) | 2020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5년 연속 수상 | **TTC** 대한민국 최우수여행사상 20년 연속수상

기권포함내역 식사요금 필수 경비 모두 포함(단, 당일여행 및 개별상품은 미포함) | **기대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기대 경비(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이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안전경비내역 ●여행유치비 ●여행자제비 ●철수권금 ●여행금지 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 **여행비** 소비자 부담의 자유선택사항(항공사에 따라 부담에 따라 불이행 없음.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와 배상

여행경비는 예약별 가상계좌로만 입금받고 있습니다 ●종로구청 일민여행업 제467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민여행업 영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출발지: 인천/김해/대구/무안/성주공항 ●여행발행처: 서울 1588-8692 ●최소출발 10명(일부상품제외) ●2인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항공, 버스, 택리,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텔: 4, 5성급 호텔, 숙박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